

신령한 예배
천국입문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아름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충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총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 2006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복음을 위한 결정, 복음을 위한 일꾼 “이 복음을 위하여...내가 일꾼이 되었노라”(엡 3:7)

지난 주일(26일), 주님의 은총으로 준비되고 진행되었던 공동의회는 십자가로 하나 된 은 성도들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39대 장로 7분, 제19대 안수집사 49분에 대한 투표 결과, 각각 일꾼으로 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회에 일임하였던 제48대 피택집사 76분도 일꾼으로 결정되었습니다(“개표 결과를 공동의회를 통해서 알려야 하지만 주간 충현을 통해서 대신합니다).

이분들이 후보가 되어서 공동의회 결정이 일기까지 온 성도는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선한 뜻대로 당회는 물론 은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딤후 2:2). 이 모든 일을 돌아볼 때 우리의 고백은 하나입니다. “주님의 은총입니다”(골 15:16). 이제 주님과 교회 앞에 피택하신 분들의 교육이 시작됩니다. 이 교육과정을 통해서 피택자들을 다시 한 번 십자가의 은총 앞에 자신이 최인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골 1:23). 이들이 신실한 복음의 일꾼으로 잘 훈련받을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피택자 명단은 본지 5면을 참조하십시오.)

다음 주일(9일), 종려주일 전교인 가족 연합예배(2·3부 예배)

다음 주일(9일)은 종려주일입니다. 고난 주간인 첫 날이 종려주일로 불리는 것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당시 메시아로 개선하는 왕처럼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뜻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데서 유래되었기 때문입니다(요 12:13). 당시 군중들은 환호하며 예수님을 맞았으나(마 21:8,9), 그러나 이들은 곧 예수님을 향해 ‘못 박으라’고 돌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셨지만 구원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 십자가였기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간 우리는 죄인인 우리의 죄 값을 대신 치르사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셨던 예수님의 심정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히 5:9). 그래서 당시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배신했던 죄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십자가 은총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마음으로 2·3부 예배는 가족 연합예배로 드리니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유아·유치부는 자체 예배)



종려나무

4월 교회 일정

- 5월(수) 교육위원 헌신예배(수요 2부 예배시)
- 9일(월) 종려주일(전교인 가족 연합예배)
- 14일(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시작(14일, 금요일까지)
- 16일(금) 성금요일 및 제3차 성찬식(금요일회 시)
- 16일(월) 부활주일, 부활절 특별 찬양예배(찬양예배 시)
- 19일(수) 교회 주변 전도(수요 1부 예배 후)
- 23일(월) 제2차 학제세례(찬양예배 시)

*수요 2부 예배 및 금요일회 시간 변경
금주 수요일(5일)부터 저녁 7시에서 7시 30분으로

개여, 이 말씀을 들으라!(금요일회)

그리스도의 영광

주님은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신다(마 25:1, 30-33). 예수님은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다. 우리의 시간과 능력, 재질, 지위, 재산, 영향력 등은 모두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다. 금, 은, 구리라는 재질의 가치로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은 가치를 구분할 때 돈이라는 일반적인 개념을 가지고 표현한다.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타국에 가신다고 하신다. 그리스도는 이 땅으로부터 떠나 하늘로 가실 것이다(요 14:2,3). 주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행할지 특별한 목적이 있으신다(행 2:33-35). 그분은 거기에서 그의 종들이 그가 지시한 모든 일을 맡을 때까지 앉아서 중보의 기도를 드릴지 것이다.

우리에게 삼금을 위한 시간과 심판을 당할 시간이 올 것이다(행 5:30,31). 진정으로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 것이다(빌 2:9-11).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소유된 종이라고 말씀하셨다. 주님은 우리에게 귀한 의미를 가지고 계시며 믿으신다. 우리의 책임과 의무에 따라 모든 달란트를 주시며 믿어 주신 것이다. 주님은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셔서 그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셨다(롬 1:1).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소유였던 것을 우리들의 손에 내리주시고 이 땅을 그리스도의 관제된 것이다. 우리의 소유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불어나야만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다(엡 4:7-12).

이제 중요한 것은 두 종류의 종이 있다는 것이다. 이 종들은 동일한 능력을 가진 자들이다. 환경, 기회, 훈련, 유전(genex), 마음(mind), 심령(heart), 철제, 주도권,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각각 그들의 주인의 뜻을 잘 이해하고 있다(마 25:15). 주께서 주의 것을 저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다(고전 12:8-11). 주를 위하여 쓰이도록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요, 반드시 분명한 계산이 이루어질 것이다(마 25:21).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의 책임이 그리스도에게 향한 것이며 또 그리스도 앞에서 계산될 종들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다. 영원한 상급 역시 그리스도로부터 올 것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것이다. 다시 한 번 기회를 돌이킬 수도 없다. 찬란한 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영원한 행할 역시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다. 은총의 시간은 지나가 버린 것이 아닌가!

이 땅 위에서 볼 때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참으로 행한 자이다(마 25:24-26). 그는 주인의 능력을 알고 있다. 그가 여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던 말인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한다. 하나님을 자신의 교만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에게는 세

4. 달란트 비유를 통한 그리스도의 권위(마 25:14-15)

상의 것들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 등정도 사랑도 감사도 없다. 그저 천국만 가려고 한다. “왜! 하나님은 이 땅 위의 행복과 기쁨을 나로 하여금 맛보지 못하게 하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모든 것을 혼자 다 할 수 있을 텐데... 왜! 십자가의 길만 가라고 하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신다. “이 무익한 것을 바랄 어두운 데로 내려 쫓아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갚으리라 하리라”(마 25:30).

우리가 여기에 단번에 알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이 온다는 사실이다(마 25:31,32).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그분의 영원한 신성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단 말인가! 양은 그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갈라놓으실 것이다. 불꽃 같은 농도로 분리할 것이다. 각자 각자와 그리스도와와의 관계를 말씀하신다. 상황은 변하였다. “내가 주될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다.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여 주었다.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다.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다.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구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감사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의 소유였기 때문이다.” 어떻게 이를 다 설명할 수가 있을까?

의의 주님! 심판의 주님은 말씀을 계속하신다. “저자를 받은 자들이 나를 떠나가라! 얼마나 내가 너희에게 사랑을 주었는가? 얼마나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호소하였는가!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주될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다. 나는 굶주렸음에도 목 마를 때에 마시게 아니하였다.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 들었을 때에 찾아가지 아니 하였다.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 하였다.” 저희가 그리스도께 묻는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리신 것이나 목 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였던가? 내가 누 군데?” 주님은 대답하신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 아니 한 것이냐!” 만일 이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와 심판의 광경 안에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아니라면 모든 인간의 책임, 의무, 봉사, 소망, 두려움, 죄, 공포, 영원한 운명을 하나님을 떠나 인간에게 돌리는 어리석은 짓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시 45:6; 요 20:27). 감히 생각할 수도 없다.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니이다”(마 20:28).

PALM SUNDAY

"And when they had approached Jerusalem and had come to Bethphage, to the Mount of Olives, then Jesus sent two disciples, ²saying to them, "Go into the village opposite you, and immediately you will find a donkey tied [there] and a colt with her; untie [them,] and bring [them] to Me. ... ⁹And the multitudes going before Him, and those who followed after were crying out, saying, "Hosanna to the Son of David; BLESSED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Hosanna in the highest!" (Matthew 21:1-9)

During the last week of Jesus' life in ministry, He spent time with Lazarus, Martha, and Mary. They lived in Bethany, which was close to Jerusalem, and He stayed with them the night before and the night of His triumphal entry into Jerusalem (Jn. 12:1 & Mt. 21:17). When He awoke that morning, He decided to show the world that He was the Messiah. He had a plan, so He called two of His disciples to go to a neighboring village where they would find a donkey and her colt. He told them to untie them and bring them to Him. If anyone asked what they were doing, they were to say, "The Lord has need of them" (v. 3). His plan to ride into Jerusalem on a donkey's colt fulfilled the Old Testament prophecy of Zechariah, which said, "Say to the daughter of Zion, Behold your King is coming to you, gentle, and mounted on a donkey, even a colt, the foal of a beast of burden" (v. 5).

After the disciples brought the donkey and the colt as Jesus instructed them, they laid their coats on them and Jesus began His ride into Jerusalem. His disciples and the multitude that surrounded Him began shouting, "Hosanna to the son of David; blessed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Hosanna in the highest" (v. 9)! This was the first time that everyone recognized Jesus as the Messiah, the son of David. His true genealogy, as recorded in Matthew 1:1 was finally accepted. Today we recognize Jesus as the Son of God, but on that day, Jesus accepted the Jew's acknowledgement that He is the Son of David. It is a day that we now remember and celebrate as Palm Sunday.

In the first century, when a king entered his kingdom, people lined the streets in celebration. The king usually rode a large decorated white horse, followed by his soldiers and officials, with professional musicians and banners. The royal procession moved slowly, and everyone cheered and rejoiced at the king's coming. For Jesus, this was His first public appearance as the King of kings. When He was born, the wise men from the east came to worship Him as Messiah (Mt. 2:11), as did the shepherds in the fields near Bethlehem (Lk. 2:11-12; 20), but after this His kingship was private. Now, as He entered Jerusalem on the colt of a donkey, His disciples and followers welcomed Him as Messiah.

When you enter this church and hear the hymns resounding through the air, does your heart welcome Jesus Christ as your Messiah? Is Jesus Christ really the King of kings? If so, are you willing to loudly cry out to worship, glorify, and honor Him this Palm Sunday? Do you really want the spiritual salvation that Jesus

offers? Can you honestly sing "Hosanna", which is the Greek equivalent of a Hebrew greeting that means "save us we pray" (Ps. 118:25)?

Jesus' royal procession was different. He rode on a donkey colt, not a white horse, and the people who surrounded Him were not soldiers, but those whom He touched with His love. Two of them were men born blind whom He healed (Mt. 20:29-34). His disciples and followers were poor, so instead of throwing flowers, they cut off the branches of palm trees and placed their coats on the ground for Jesus to ride over. His procession was sincere and beautiful, but with worldly eyes looked ragged not royal.

The appearance of His parade did not make His heart sad, for He had the power to bring at a moments notice thousands upon thousands of heavenly angels. What did sadden Him were the people of Jerusalem, "Jerusalem, Jerusalem, who kills the prophets and stones those who are sent to her! How often I wanted to gather your children together, the way a hen gathers her chicks under her wings, and you were unwilling" (Mt. 23:37). The sinful pride, hypocrisy, and selfishness of Jerusalem made Jesus cry. Worldly riches attracted them, and heavenly riches drew them away. Jesus' crowd was poor, but they gave Him their whole heart, and that is what is most wonderful in His eyes.

Look at yourself today. How much do you really bring to Jesus Christ? If you want to make Jesus happy, you have to be like the poor people who gathered around him, bringing everything, hearts, clothes, and hands, to Him. It was all they could do, and therefore the very best to Jesus. You already know that He is the Son of God. Jesus told John's disciples to report to him what they saw and heard, which was that "the blind receive sight and the lame walk, the lepers are cleansed and the deaf hear, the dead are raised up, and the poor have the gospel preached to them" (Mt. 11:4-5). These people called Jesus their Friend, their King. Often times we seek Jesus for comfort and understanding, but not to give Him worship and honor. This is the last Sunday of Lent, the week in which Jesus took the cross at Calvary to die for you because He loves you. To the weak and poor, Jesus is the Messiah, the King of kings, the Son of God. When your life as a Christian here on earth is finished, you will see your Messiah, Jesus Christ, whom the people of Jerusalem crucified at Calvary. Do you believe it? Are you willing to follow Him to heaven, praising and glorifying Him along the way? 

다음 주일 설교

총려주일

①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벧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②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③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마태복음 21:1~9)



김성판 목사

예수님은 공생애의 마지막 주간을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와 함께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베다니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날 밤과 그 전날 밤을 이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요 12:1, 마 21:17). 그날 아침 눈을 뜨면서 주님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주님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두 제자를 이웃 마을에 보내시며 그곳에 매인 나귀 새끼를 풀어 자신에게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일 누가 무슨 일이라고 물으면 “주께서 쓰시겠답니다.”라고 대답하라고 일러주셨습니다(3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려는 주님의 계획은 구약의 선지자 스가랴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니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메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5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려온 뒤 제자들은 자신들의 겂옷을 그 위에 엮었습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과 주위를 둘러싼 허다한 무리들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9절) 처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곧 메시아로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에 기록된 것과 같이 예수님의 혈통이 마침내 인정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는 유대인들의 고백을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이 날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종려주일로 기념하는 날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 당시에는 왕이 자신의 왕국에 입성하면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줄을 이어 서서 이를 축하했습니다. 대개 왕은 화려하게 장식된 백마를 타고, 군병과 신하, 군악대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왕의 행렬은 아주 천천히 움직였고 사람들은 왕의 입성을 축하하며 기뻐했습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예루살렘 입성은 자신이 만왕의 왕임을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첫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들과(마 2:11) 베들레헬 근처에 있던 목동들이 메시아로 오신 주님을 경배하러(눅 2:11, 12, 20) 온 이후로 주님의 왕권은 비밀리에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자, 제자들과 무리들이 그를 향해 메시아라고 외치며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서면서 예배당에 올려퍼지는 찬송을 들을 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환영합니까?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종려주일에 큰 소리로 외치며 주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며 경배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구원을 진심으로 원하십니까? 정직한 마음으로 “호산나”라고 노래할 수 있습니까? “호산나”는 헬라어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시 118:25)라는 뜻의 히브리 인사말입니다.

겸손하신 예수님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행렬은 다른 왕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주님은 백마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둘러싼 사람들은 군인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극한 애정으로 돌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이 면서부터 소경이었다가 고침을 받은 두 사람도 있었습니다(마 20:29-34). 이와 같이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무리들은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쫓다 발 대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자신들의 겂옷을 길에 펴서 예수님이 밟고 지나가게 했습니다. 주님의 행렬은 진심이 묻어나는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전혀 왕답지 않은 초라하기 그지없는 행렬이었습니다.

초라한 행렬이었지만 주님은 슬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순식간에 수백만의 천사들을 불러올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슬프게 한 것은 바로 예루살렘 백성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얍람이 그 새끼를 낳아 아래 모음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마 23:37). 예루살렘의 사악한 교만, 위선, 이기심 때문에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세상적인 부유함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때 하늘의 부유함은 그들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온 마음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갈보리의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자기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께 무엇을 드렸습니까? 예수님을 기쁘게 해 드리고 싶다면 주님을 둘러쌌던 가난한 자들과 같이 해야 합니다. 그들은 주님께 모든 것, 즉 마음, 웃, 소유물 전체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의 것이었고 따라서 주님도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들이 보고 들은 것 곧 “소경이 보며 앓은병이 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마 11:4,5) 되고 있음을 요한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친구이자 왕으로 여겼습니다. 우리는 자주 위로와 이해를 받으려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경배와 영광을 돌리기 위해 주님을 찾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마지막 주간에 예수님은 갈보리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여러분을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고 약한 자에게 예수님은 메시아,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이 끝나면, 예루살렘 백성들이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못박았던 여러분의 메시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천국에 이를 때까지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며 기꺼이 주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수요 1부 예배 메시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요 5:17-20)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밝은 빛이 된다. 그런데 우리는 삶 속에서 말씀이 중요하다고 느낄 때가 몇 번이나 되는가? 세상의 것을 얻을 때는 무척 기뻐한다. 그러나 말씀을 통한 기쁨은 거의 없지 않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다. 말씀을 합리적으로만 생각하여 예수님을 필박하고 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요 5:17).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한가?

나의 아버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아들 이신 예수님을 보내셨다(롬 8:32).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무모한 이 성경의 진리가 우리 신앙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님보다 자신과 가족들을 더 사랑하고 있지 않은가?(마 10:37) 이 세상의 축복만을 원하고 있지 않은가? 참 그리스도인의 바탕에 성경이 있어야 한다.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행해야 한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야 한다. 바울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빌 2:6). 세례 요한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고 있다(요 1:34).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온 진리였다. 초대교회의 신자들은 이 사실을 진실로 믿었기에 극한 필박과 순교를 기꺼이 당하였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진실로 믿고 있는가? 혹시 세상의 축복을 구하는 말씀에만 순종하였는가?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니라"(요 3:16). 하나님을 행해서 "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라!

두 가지 의의 하나님에 대해 자신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예수님을 향해 유대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요 5:18). 율법을 알고 계신 분이 기다리는 사람이었지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리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의로 나누었다. 하루 볼 품없는 나사렛 시골 청년이었던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는가?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를 죽이려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소위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사실 앞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믿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믿음은 합리와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다.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던 말인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의견은 어떠한가? 합리적으로 생각하여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에 쓰인 그대로 믿으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였다(요 5:20, 21). 어리석은 부자의 잘못을 반복하지 말라(요 12:16-20). 우리의 모든 소망과 기쁨을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두어야 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예수님을

따르라!" 사람들이 알아 주지 않고 삶이 곤고할지라도 오직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한다. "주 예수 내 맘에 붙어라 계신 후"(찬 208장). "환란과 필박 중에도 성도는 신망 지켰네"(찬 383장). 기회가 없고 때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제 곧 일할 수 없는 때가 오기 때문이다(요 9:4).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만을 믿으며 십자가를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요 4:34).

예수님의 증거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요 5:36).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증거를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 회에게 말하였도 믿지 아니하노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어"(요 10:25).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믿어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고 있고 때문이다(요 8:55).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자!

그리스도의 희생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기 위해서였다. "아버지께서 나를 기쁘고 내가 아버지께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요 10:15). 또한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은 하나님의 일이었다(마 14:10).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삽고 자비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삽나이다"(요 17:25). 계속해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요 19:30). 이 땅에서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고백이 되기 바란다. 이를 위해서 생명의 말씀, 영의 말씀으로 자신을 채워야 한다.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온전히 십자가의 예수님만을 증거해야 한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요 5:17).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증거를 온전히 믿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르자. 오직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께로 돌아가자! '참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을 밝히 보여 주나'(찬 235장). 아멘.

*사순절 메시지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마 2:12-15). 그리스도의 영광(마 23:37, 시편왕인 예수님(눅 4:12). 아버지께서 주하시 전에 아산대(마 6:78). 악한 세력(눅 11:29-32). 그리스도의 권위를 통한 그의 신성한 영광(마 10:37). 자비와 사랑을 돌려라(마 17:5). 죽음과 부활에 관한 예수님의 예언(마 20:17-20). 신령과 신부(마 21:9). 생수(요 4:13, 14). 물새(마 18:21, 22). 천국에서 크고 작은 자(마 5:19).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권위(마 7:36-40). 두 가지 중요한 핵심(요 9:39-41).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요 5:17-20). 달란트 비유를 통한 그리스도의 권위(마 25:14-15).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예수님(마 11:41-44). 내 말에 거하면 나의 참 제자라(마 8:31-32). *나의 수요일(3월 1일)부터 오늘(4월 2일)까지 계속된 사순절 메시지입니다. 앞으로 부활 주일 전(4월 14일)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 죽음, 새 예루살렘을 소망할 수 있는 사순절 메시지는 계속됩니다.

새벽을 깨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찬양대

"주의 광복의 날에 주의 백성이 기록한 율을 읽고 즐거이 헌신하리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노다"(사 110:3)



김경근장로, 가브리엘 찬양대장

주일 1부 예배(오전 7시)를 섬기는 가브리엘 찬양대는 새벽부터 분주합니다. 실제로 1부 찬양대에 서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세 시간 전부터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찬양대 임원들과 대원들의 봉사는 잠을 깨워 주는 전화를 주고 받는 새벽 4시 30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찬양대원이나 가브리엘 찬양대에 청년들의 참여 구성비가 50%를 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청년들끼리 잠을 깨워 주는조를 편성하여 한 조당당 4~5명의 대원이 매정되어 정확하 4시 30분에 먼저 조장을 깨워 주는 전화를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각 조장들은 다시 조원들을 전화로 깨워 주의 전으로 불러와와 오전 6시부터 시작되는 찬양 연습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대원들은 아침 기도회와 찬양연습을 한 후에 찬양대석에 등단하여 1부 예배를 찬양으로 수종들게 됩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이 토요일에 모임을 갖는 대학부터 청년 1부에 소속되어 있어 부식별로 특별 행사에 있는 경우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시편 때부터 일찍 학생들은 밤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연습 시간에 맞춰 오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분이 '가브리엘 찬양대 청서원인'이 너무 적어서 예뻐 드리는 모습이 이해할 수 못하니 피아노 쪽과 율곡 쪽으로 나누어 지는 찬양대석을 어느 한 쪽으로 모여앉자고 하니 찬양대석, 이 말을 들은 모든 대원들은 '참이었는데 하나님께 매리는 데 우리 때문에 양 날개 찬양이 한 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

다. 이 때부터 가브리엘 찬양대원들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 '히침 깨워 주기 운동'입니다.

또한 가브리엘 찬양대원들 간에는 '일토일주'라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일토일주'는 일찍 자는 토요일, 일찍 깨는 주일이라는 긴 말을 축약하여 서로 약속의 인사로 나누는 가브리엘 찬양대원들의 인사말입니다. 특히 바바람이나 눈비로 굶은 날, 연휴 중 주일이나 명절과 겹치는 주일에는 특별히 청년대원들이 앞장서서 새벽에 달려 나와서 평상시보다도 높은 참여율을 보여 '어려운 때 더 잘 모이는 가브리엘 찬양대'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오랜 전통인 가브리엘 찬양대에서 헌신하고 있는 대원들과 임원들의 간절함이 고스란히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청년들을 향한 깊은 사랑에 대한 주님의 은총으로 믿고 더욱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의 때에 주님을 영접하고 세상의 많은 유혹을 뿌리치고 주님을 바로 섬기고자 새벽에 주의 전으로 달려 나와 기쁨으로 주를 찬양하는 청년들을 볼 때마다 전 대원이 보람의 은총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때에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요 38:7). 무엇보다도 새벽을 깨워 기쁜 소식을 전하여 준 가브리엘 찬양대와 같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온 세상에 알리는 가브리엘 찬양대가 될 수 있도록 온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피택자 명단

제39대 장로 피택자(나이순)

이 름 (교구 교적번호)	이 름 (교구 교적번호)	이 름 (교구 교적번호)
황학규 4 5098	정창수 3 93-283	엄복섭 6 89-29
이상석 4 82-153	오순도 4 86-325	양기수 5 89-688
김택식 15 89-18		

제19대 안수집사 피택자(나이순)

이 름 (교구 교적번호)	이 름 (교구 교적번호)	이 름 (교구 교적번호)
정철석 8 91-616	정운출 18 95-1489	이성실 9 3821
박찬욱 12 92-240	김승규 1 89-979	백종운 4 95-525
한용택 6 91-68	유동호 3 89-1556	정 준 13 99-964
이성남 14 91-278	이선홍 12 99-1019	이일섭 7 91-1112
김종민 13 4100	서진원 15 98-638	임희준 5 86-376
김동안 17 4946	강홍선 8 92-303	이인용 4 91-685
박남주 3 86-45	박규연 17 2145	정재복 9 84-988
박석산 6 91-52	정찬용 2 98-949	이준식 3 2842
김기홍 10 83-666	박재현 18 92-1743	장지관 8 89-290
장경욱 6 94-1201	박명근 13 82-454	임광신 18 82-129
유병수 2 95-680	배종락 14 94-108	고재훈 6 91-412
강호원 4 89-228	정승진 16 83-703	황재현 3 88-257
임우도 16 88-1012	임병준 7 53	양승찬 11 87-463
이경환 7 98-1172	한홍연 17 87-603	최계열 1 91-1231
이진수 1 88-816	이상배 12 83-662	김충식 10 82-520
김홍열 15 95-1597	최영인 9 89-232	정진곤 5 90-217
김성현 15 97-888		

*피택자는 (장로 피택자는 부부동반) 오늘 저녁 찬양예배 후 베다니 홀에서 피택자교육 개강 예배를 드리오니 전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8대 권사 피택자(가나다순)

이 름 (교구 교적번호)	이 름 (교구 교적번호)	이 름 (교구 교적번호)
강석분 10 81-38	강성자 14 82-791	곽계자 5 91-1238
구영희 18 88-747	김경희 7 79-352	김금례 12 94-1064
김남희 8 89-420	김미자 17 84-559	김보옥 3 86-45
김영구 3 2966	김용배 17 82-825	김영자 2 90-586
김옥희 16 2076	김용배 10 89-1563	김재운 14 84-484
김정란 9 79-353	김종녀 16 89-1159	김태숙 15 96-166
김화순 1 89-1421	김희수 1 95-1543	나영실 12 83-289
남계순 18 97-144	남숙자 11 1342	류향란 16 84-1236
문경숙 11 81-171	박경숙 18 93-1857	박남희 15 93-1067
박미순 4 83-73	박복순 12 5071	박성남 13 92-208
박영순 8 91-1107	박영옥 6 88-866	박재순 7 93-651
박철순 17 88-695	박혜순 16 87-570	박희숙 13 99-964
성명선 3 81-145	성지현 15 86-611	손유비 13 81-283
송영복 17 88-610	송해숙 14 96-1254	신영희 7 4696
안수자 6 92-1167	양영애 15 93-626	엄정자 11 85-873
오혜옥 10 93-1793	유은실 9 357	유정선 16 82-688
윤남순 14 3335	윤 순 2 88-560	윤홍자 7 80-10
이규숙 3 89-1556	이복연 8 1748	이숙희 1 86-125
이순애 6 4919	이순옥 17 5345	이애영 11 442
이영순 12 88-80	이영희 1 93-1054	이옥순 17 88-609
이재순 9 92-1569	이창순 4 91-500	이향선 4 95-253
이혜경 3 89-1422	임정숙 11 79-117	정금순 13 86-306
정연희 5 94-523	조순남 2 4160	최수자 2 88-729
최영애 10 88-22	한 숙 9 87-621	함윤자 5 82-7
홍애경 5 92-433	황순란 6 82-435	황정미 7 92-1244
황 향 4 93-1851		

서리집사 추가임명자

교 구	남	여
1	김원섭(2005-0122)	송미례(2000-0523) 유외숙(2000-0521) 유 향(92-1681) 이인순(2002-0360)
2	이민형(86-449)	장명숙(2000-0443) 전덕란(2005-0122) 황경분(2002-0345)
3		이선화(87-352) 이현숙(89-1322) 진화는(2004-0755)
4	김준수(93-440) 심연식(99-951) 은희천(94-1340)	김지은(2003-0518) 류정희(2002-0291)
6	김진환(97-330) 김현진(89-711) 유용열(2003-0412)	방은석(95-67) 홍말희(2005-0089)
7	권오인(83-42) 김석봉(2002-0030)	박양임(2001-0276) 이종심(2004-0276)
8	송진영(96-585)	권형숙(94-972)
9	조주성(99-1089) 황익수(92-273)	이선경(84-1238)
10	박태진(2001-0177) 송동춘(97-86)	성유경(92-273)
11		황연숙(99-38)
12	김영식(93-1475) 김정현(2000-0336)	
13	김인권(86-58)	김정엽(86-58)
14	김동립(82-791)	윤선미(2001-0115)
15	신덕길(93-151)	김정민(92-388)
16		사규영(2001-0189) 황수미(2003-0298)
19	오 현(96-973) 유재혁(2001-0413) 이복희(2004-0236) 천명기(2005-0377) 황인호(99-187)	김승희(2002-0352) 박수현(94-480) 손함아(98-753) 안윤정(81-986) 이혜경(2003-0232) 이혜란(2004-0252) 이환희(2002-0202) 최선정(2002-0235) 황은미(2004-0214)

“말씀에 순종하며 철저히 성령님만 의지합니다!”

- ◇ 복음을 들었던 순진하고 맑은 어린 영혼들이 계속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남미선 교사)
- ◇ 한 영혼, 한 영혼이 정말 소중하여서 복음 전도를 잠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전도 외에 다른 것은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이 믿음에 계속되길 기도합니다. (허만선 교사)
- ◇ 만남 가운데 기억나는 얼굴과 그 이름들! 그들은 분명 주님의 자녀였습니다. 이들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김민정 교사)
- ◇ 임팩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김유순 교사)
- ◇ 주님의 인도와 기도 응답의 역사를 떠올리면 놀랍기만 합니다. 특히 소극적인 운전기사가 적극적인 동역자가 되어 함께 복음을 전하는 모습에 보면서 주님의 은사에 감사하였습니다. (윤보경 교사)
- ◇ 뜨거운 태양도, 오르는 땀방울도 우리들의 선교 열정을 꺾지 못하였고 오로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 대원이 모든 열정을 쏟았습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마다 예수를 믿었다고 다 짐하여 영접하였고 고개를 끄덕이며 “아멘”을 외쳤습니다. (최영자 교사)
- ◇ 학교 사역을 통해 주님이 함께 계심을 느꼈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볼 때 안타까웠습니다. 예비된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주님의 인도에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현지에 교회가 세워질길 기도합니다. (최영득 교사)
- ◇ 선교는 가고 싶어서 가고, 전하고 싶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주님의 자녀가 마땅히 해야 할 지상 명령임을 깨닫습니다. 기도하게 하고 말씀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전국 가는 날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순종하겠습니다. (이정화 교사)
- ◇ “말씀에 순종하며 철저히 성령님만 의지합니다.” 모일 때마다 기도를 드렸습니다. 40도가 넘는 더위에도 추운 겨울도, 노방전도를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찬양 드리게 하신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는 그 땅을 떠나겠지만 주님의 은총이 그곳에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김종기 담임)

유년부 1팀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기 간	팀	팀 장
3월 21일(화) ~ 3월 29일(수)	11교구 6지역	박성명
3월 21일(화) ~ 3월 29일(수)	직 원(3)	최상기
3월 21일(화) ~ 3월 30일(목)	12교구 8지역	정영래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기 간	팀	팀 장
3월 27일(월) ~ 4월 5일(수)	16교구 5지역	김규용
3월 27일(월) ~ 4월 5일(수)	12교구 1지역	조문수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기 간	팀	팀 장
4월 4일(화) ~ 4월 13일(목)	10교구 추가	이용수
4월 5일(수) ~ 4월 13일(목)	직 원(4)	이철호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려고!”

제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진실로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 감격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저는 아버님이 목사님이셔서 교회 안에서 자랐습니다. 늘 예배를 드렸고 봉사도 많이 했지만 제 마음에는 항상 뭔지 모를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되는 교회에 있었지만 저의 마음은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착실한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실상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 했습니다.

이처럼 제가 진실로 예수님을 만나 십자가를 깨닫기 전까지 저는 육신의 생각에만 머물러 있었고 따라서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했고, 육체의 질병과 죄 때문에 지저분하고 더러운 죄인의 마음 속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제 노력이 아니었고 전적인 십자가의 은혜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은총의 자녀로 살아 주신 것입니다.

이 은총의 예수님을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다시 만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복음서를 묵상하면서 만나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통해서 저는 다시 한번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은총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영광을 버리고 육신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려고!” 이 예수님의 은혜는 평생을 눈물로 감사하며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예수님께 죄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눅 22:31,32).

네 병든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하네!

이제는 기억도 가물가물한 7.8년 전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중증부 교사로 봉사하고 있던 저는 이를 전에 유산을 했기에 몸이 좋지 않은 상태로 교사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안정이 필요하였지만 약간 무리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여하튼 수련회를 잘 마치고 돌아올 때 한 선생님께서 저를 집 근처 버스정류장까지 태워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내린 폭설로 걷기조차 힘든 상황이었어서 평소보다 늦게 겨우 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일찍 도착해서 아이들과 저녁을 먹을 생각으로 출발했지만 예상 외로 늦어지면서 초등학생이었던 우리 아이들은 눈 속에 고립된 아파트에서 배고파하며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그 상황 속에서 그때 처음으로 주님을 원망하였고 차츰 좌절의 고통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병원에서도 알 수 없는 여성 호르몬 부족으로 경수가 끊어지고 남들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살도 많이 쪼개 걱정스러운 정도의 모습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이후 저는 병원과 약국을 전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도 제 마음 속에서 떠나버렸습니다. 교회 봉사도 그만 두고 교회도 자주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계속되는 권면과 심방을 통해서 전해지는 은총의 말씀은 차츰 저의 마음을 열었고, 다시 한번 눈물로 회개하며 교회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시작된 금요일회 시간의 아픈 자들을 위한 기도시간을 통해서 저는 놀라운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였습니다. 저는 치유를 위한 기도시간마다 나가서 주님께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체면과 위신을 모두 버리고 그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더불어 찬양대 봉사를 통해서 저는 보혈의 은총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그토록 저를 괴롭히던 병에서 나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은총을 힘입어 저는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람을 받았느니라”(마 9:2). 단순히 육신의 질병을 고침 받은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해방이기에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만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명화(집사, 7교구)

김혜경(집사, 8교구)

성경을 마음 속에!

안녕하세요?

저는 한산시 본교동 본원초등학교에 다니는 이정호라고

합니다. 저는 몇달 전만 해도 그냥 대강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던 한 아이였습니다. [문답]

전에는 제 교회 나르기를 싫어하는 아이였습니다.

할머니께서는 항상 "초등부 해라. 찬양대 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씀 듣기만

했지 행동으로는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번 (초등부)에 초대받았고

하였습니다. 저는 초등부를 그냥 무시할 말씀이고,

찬양 부르고, 그냥 예배와 같은 것인줄 알았습

니다. 그러나 들어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곳에선 "민음"을 읽고, 성경을 마음속에 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왜 할대나 교회에

서 봉사활동을 하고, 왜 인교를 나가시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초등부를 나가보니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비로 '성경'을

마음속에 품고 있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다음에 종교동학생이 되면

성경을 해볼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선교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는 것이라

고 생각합니다. 이 다음에 꼭 사람들

에게 믿음을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호(초등부)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전도

나는 12년 동안 겨우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전도하지 못 했다. 친구에게 전도를 했지만 모두 다 실패했다. 친구들은 일요일엔 놀아야 한다느니, 자기는 자기 자신을 믿는다는니 하면서 여러 가지 변명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친구들이 거절한다 그 해서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다. 나는 집이 멀다는 이유로, 차가 비좁다는 이유로 친구 전도를 포기할 뻔했다. 이제는 그런 이유가 적잖아지 않다고 생각한다. 전도는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친구가 어디에 살든, 어떤 이유로 변명을 하든 가능하다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고 더욱더 노력하여 친구를 전도할 것이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전도는 나에게 '식은 죽 먹기'일 것이다. 예수님께서 꼭 도와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이다. 전도가 어려울 것 같지만 하고 보면 더 큰 은혜를 받고 즐거운 맘이 생길 것이다. 꼭 삼상을 타기보다는 예수님을 기쁘게, 친구를 구원하기 위해 전도는 꼭 해야겠다. 나만의 전도 방법은 이렇다. 1. 전도를 친구를 위해서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 2. 밝은 미소와 부드러운 말로 친구에게 예수님에 대해 설명한다. 3. 친구가 변명을 하면 같이 해결 방법을 생각해 본다. 4. 친구가 승낙하면 같이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저는 할 할 수 없으니 예수님께서 제가 전도할 수 있게 힘주세요."

임소정(소년부)

새벽마다 누리는 은총!

만물이 새롭게 소생하는 봄입니다. 이 봄날에 진행된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는 좀처럼 있던 저의 신앙을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세상의 것이 좋아서 매일매일 세상을 향해 나가지만, 예수님은 그 때마다 저에게 "돌아오라"고 간절히 부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는 것이 즐거운 죄인이 바로 저였습니다. 죄인! 저는 새벽을 통해서 드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닫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저의 죄 때문에 또 다시 무너졌지만 다시금 십자가를 붙들며 기도합니다. "예수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죄인인 저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진실로 사랑합니다." 유태준집사, 12교구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나를 돌아보았습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하며 살고 있는가... 항상 주님은 나에게 세 번재였습니다. 언제나 나는 하고 싶은 일을 첫 번째로 하였고, 두 번째로는 내가 해야 되는 일을 하였고, 세 번째에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는 일을 하였습니다. 여전히 그렇게 나를 먼저 생각하며 살던 나에게 사순절 새벽기도회를 통해 다시 한 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나에게 부끄러운 예수님의 음성으로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요한복음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그 지극한 사랑과 그 사랑을 찬양했던 다윗의 시가 새롭게 느껴집니다. 미려한 자는 주께서 항상 저와 함께 계신다는 걸 알면서도 외로워하며 잘 보이지 않는 나의 앞길 때문에 답답해 하였습니다. 나의 욕심, 나의 두려움 죄, 나의 가식적이었던 모습들, 나의 버리지 못하는 옛것들, 언제나 나를 위하여 살았고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만나려 했습니다. 이렇게 이기적이고 가식적이었던 내 앞길에 예수님은 저를 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내 곁에서, 언제나 나를 첫 번째로 생각하시며 나를 위해 은유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겉세마네 기도를 통해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나로 하여금 내가 얼마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분 뜻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서 주님께 다시 한 번 간절히 고백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돌아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이우연(대학부)

♡ 새 · 가 · 족 · 을 · 원 · 영 · 합 · 니 · 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021	김복희	11	장년2부	공정자(8)	1053	복성숙	18	장년2부	민정순(18)
1022	구영희	6	장년2부	박영자(18)	1054	민정순	18	장년2부	민정순(18)
1023	김재미	6	장년1부	구영자(4)	1055	김하나	19	대학부	한윤태(6)
1024	김선경	5	외선부	김희숙(5)	1056	김현아	19	대학부	이정희(6)
1025	김민지	4	대학부	박현숙(14)	1057	홍진희	13	장년2부	박희숙(16)
1026	정영라	4	장년1부	이민숙(14)	1058	김영희	9	장년2부	김승환(3)
1027	박숙현	19	대학부	권경숙(4)	1059	이영희	3	장년2부	홍은기(3)
1028	김민숙	19	장년1부	김호순(3)	1060	김선미	19	장년1부	김영희(2)
1029	이희영	19	장년1부	전순숙(15)	1061	김성희	18	장년1부	김영희(2)
1030	유호선	13	장년1부	양정희(11)	1062	김순희	16	장년2부	김영희(2)
1031	유성근	19	장년1부	김종숙(11)	1063	김진희	19	대학부	김주리(19)
1032	최병재	7	장년2부	김경숙(15)	1064	신정환	19	장년1부	정정자(3)
1033	양선명	19	외선부	박복희(8)	1065	권성숙	5	장년1부	배종락(14)
1034	한혜진	19	대학부	이부경(2)	1066	가나	19	외선부	정연희(5)
1035	유창현	19	장년1부	신우성(18)	1067	별보아(18)	19	외선부	강민수(14)
1036	전선미	1	장년2부	김정숙(1)	1068	황영희	3	장년3부	정정자(3)
1037	이윤진	9	고등부	김유미(3)	1069	배준경	3	장년2부	정연희(5)
1038	김민정	7	장년2부	유영숙(2)	1070	백지현	3	장년2부	정연희(5)
1039	송민정	18	장년2부	박영자(18)	1071	정혜진	19	장년1부	남귀국(4)
1040	이광수	18	장년2부	고경숙(18)	1072	김방숙	19	장년1부	조준재(16)
1041	이희영	14	중등부	전숙영(14)	1073	임정희	6	장년3부	이희재(4)
1042	하영진	19	장년1부	라현미(1)	1074	이미연	6	장년3부	양영숙(6)
1043	박은희	11	장년2부	조성숙(2)	1075	임정희	6	장년1부	최예민(8)
1044	이동진	9	장년2부	조영자(3)	1076	황영희	19	대학부	한윤태(16)
1045	양재선	6	장년2부	이진경(2)	1077	이희영	19	장년2부	이진경(6)
1046	이우성	19	장년1부	이영희(16)	1078	송호창	19	대학부	서은숙(12)
1047	임정희	19	장년1부	박남주(3)	1079	권현아	19	장년1부	김영희(2)
1048	김재희	5	장년1부	황재현(3)	1080	정재숙	13	장년1부	정영자(3)
1049	이은미	19	장년1부	이정희(14)	1081	전종영	10	장년3부	김재순(10)
1050	정혜진	19	장년1부	한금자(8)	1082	박태숙	3	장년2부	정영자(3)
1051	이호숙	3	소망부	반영희(3)	1083	연영숙	4	장년1부	이금숙(4)
1052	김영희	8	장년3부						

※ 중헌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5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

- ① 위임직무사명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십자가 복음의 무로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간간함을 주십시오
- ② 총현의 모든 성도들이 사순절을 통해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배풀어 주십시오
- ③ 2006년도 단기 선교와 모든 선교 훈련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며, 선교에 방관하지 않게 하십시오
- ④ 1:1:1 전도와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실시되는 교회헌장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통로가 은혜를 주십시오
- ⑤ 모든 위헌회에 속한 가인들을 주어진 본분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함으로써 하나님의 기뻐한 한 줄의 화를 가져가게 하십시오
- ⑥ 모든 새가족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십자가 복음을 확신하며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십시오
- ⑦ 대대 목표의 하나인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새워진 총현복지관이 십자가 복음으로 운영되게 하십시오
- ⑧ 교회에 속한 재건유지·동산·복지회를 십자가의 은혜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십시오